

사목 공지

축 영

새 신부님 부임

- 임기선 요셉 신부님 : 주임사제
- 노호영 미카엘 신부님: 제2보좌
-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언어연수
- 환영식: 2월 16일(주일) 매 미사 중

수녀님 송별식

- 장 메리노 수녀님: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2월 17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출발
- 이 첼레스티나 수녀님: 2월 23일(주일)10:30am 미사 중
-2월 24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출발
- 그동안 수고하신 수녀님들을 위해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수녀님 부임

- 새 수녀님(좌순선인노첸시아, 최연숙디아나, 윤경남바오로)
- 2월 21(금) 아시아나 항공 8:20am 도착
- 환영식: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사회복지 특별헌금: \$ 2,319.50

일반 공지

플레이그룹 봉사자 모집

- 매주 수요일 10:00 am-12:30pm , 문의: 0417 177 101

차량봉사자 모집

- 주일 9:00am, 10:30am 미사를 위해 차량봉사하실분 모집 (리드컴, 캠퍼스, 이스트우스)
- 문의: 0414 488 700

청년성서 창세기, 탈출기 그룹원 모집

- 오리엔테이션: 3월 1일(토) 청년미사 후
- 접수: 2월 22일(토) 까지
- 문의: 0433 998 728

혼인 교리강좌 (년2회)

- 일시: 2월 16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 방
- 대상: 2월-8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성령 기도회 미사: 2월 20일(목) 7:30pm

예비자 입교식

- 일시: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 환영식: 10:30a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유아 세례식: 2월 22일(토) 2:00 pm

- 부모님 면담: 2월 19일(수) 7:30pm 미사 후
- 유아세례식 당일 30분 전까지 성당 도착 요망

첫 영성체 교리반 모집 및 부모님 교육

- 부모님 교육: 매주 토요일 1:30pm

사목회의: 2월 23일(주일) 1:00pm

재의 수요일 미사안내: 3월 5일(수) 7:30pm

- 성지가지 수거: 3월 2일(주일)까지 성당입구 수거함에.

9지구 야외모임: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장소: Newington Reserve

각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수동, 자동)를 기증 받습니다.

단체모임

- 요한회: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안나회: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 독서단: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 글로리아 성가대: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주일학교 자모회: 2월 22일(토) 2:00pm
- 청년 연합회: 2월 22일(토) 7:30pm 미사 후

금주 성경 읽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코린1 12-14	코린1 15-16	코린2 1-5	코린2 6-9	코린2 10-13	갈라 1-3	갈라 4-6
묵상말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13.8)						

오늘의 중식 메뉴: 잔치국수 (ME), 떡판매(은빛대학)

2014' 상호존중 캠페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 17,605.55	\$ 250.70	\$ 2,769.50	\$ 72,714.33	\$ 20,625.75	\$ 26,577.21	\$ 66,762.87

감사,기도, 전출입

감사:

전입교우: 임성재 아몬가족, 최인혁 요셉가족
임현우 사비나, 임성준 아오스팅 가족

주일 봉사

날짜	16/2	23/2,2/3	9,16/3	23,30/3
지구	10지구	11지구	12지구	01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연중 제5주일 미사 참례수: 2,022 명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2월 16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주임신부), 8756 3331(제1보좌신부)
8756 3332(제2보좌신부), 9558 3498(고해신부)
수 녀 원: 8756 3336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신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10:30am(교중) 5:00pm(City) 5:30pm(영어) 7:30pm

연중 제 6 주일

제1독서: 집회 15,15-20

◎ 알렐루야.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 : 마태 5,17-37

제2독서: 1코린 2,6-10

영성체송 :

그들은 싹트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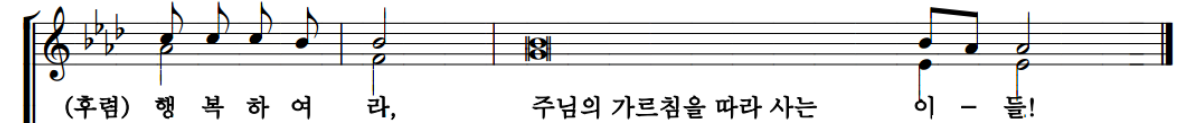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전례성가: 입당: 48 / 봉헌: 216, 217 / 성체: 171, 170, 169 / 파견: 452

화 답 송: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17일(월)	야고 1,1-11	주님,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마르 8,11-13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18일(화)	야고 1,12-18	주님, 당신이 깨우쳐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옵니다.	마르 8,14-21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19일(수)	야고 1,19-27	주님,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누가 지내리이까?	마르 8,22-26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20일(목)	야고 2,1-9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마르 8,27-33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21일(금)	야고 2,14-24.26	행복하여라, 주님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마르 8,34-9,1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22일(토)	1베드 5,1-4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마태 16,13-19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생활 속의 복음

“연중 제 6 주일 - 화해 하이라”

오늘 복음 말씀 앞에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들은 내세우지만, 결국엔 자기 욕망 하나 더 채우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 멍청이라고 기 위해 욕하고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한 사람은 없었나?’ 입니다. 비록 죽도록은 아니지만, 시작을 보면 너무나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딪힘이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정말 말씀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나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마지막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자비로운 웃음 불멘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도 있으며, 선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되는지, 오히려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또 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평화롭지 않은 마음과 공격적인 성향은 정말 타당하고 정당한 것일까요? 내가 욕을 쏟아 붓는 그 사람은 욕먹을 만한 뽀 달린 도깨비일까요? 나는 왜 계속 심판하고 있고, 더 큰 심판을 또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 속에 내 삶이 피폐해진 경우라면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원인을 스스로 크게 만들어 가는 중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움큼 정도의 것이었다면 정리하는데, 포기하는데, 이해하는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빚진 그 한 뼛을 갚고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페 4,26)

강귀석신부
개봉동성당 주임

예비자 교리			버스 운행 시간표		
8월반	주 일	10:10am (전 스테파노 신부님)		리드کم 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9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신부님)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2월반		추후공지	주 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금선 마리아 김영복 세실리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지현 프란체스카 김중훈 돈보스코 김태균 김태영	김환영 마르타 김명훈 베드로 고일순 노수진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석송 베드로 신병각 가브리엘 신순임 헤리나	안경수 필립보 여수레 마리아 이래고 안젤라 이성준 안드레아 이애자 오티리아 이억석 바오로 이영민 이은정 오티리아	이용수 이종윤 라우렌시오 이혜영 프란체스카 유기현 윤창현 마태오 임순자 마리아 임혜정 은동현 유스티노	장수호 레오 장춘자 전인혜 줄리아 정명화 정 바실리오 정영희 쟈마 정현욱 정현주 까리파스	조규정 이레네오 최춘자 안나 한 폴 황선용 크리스티나 최성규 요한
---	--	---	---	--	--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52] “죄의 용서” (1) 자비의 성사

교리 순서상 교회에 관한 교리 다음에는 성사에 관한 부분이 곧 따른다. 그런데 신경에는 성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성사 대신 ‘죄의 용서’ 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사에 대한 고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사가 죄를 사해주는 자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 2,7)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제기한 의문이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만큼 극히 힘든 일이며, 신적인 행위라 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용서로 전능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기도 첫 마디도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인 죄 사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2,10) 고 단언하시며 치유하셨다. 중병에 걸려 오래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용서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용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다. 불가시적 사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적 중풍병자 치유를 이용하셨다. 가시적 육신 치유를 통해 불가시적 영혼 치유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것이 곧 ‘성사의 방식’ 이다. 성사는 가시적 방편들(말씀, 몸짓, 재료)을 통해 불가시적 은총과 자비의 선물을 드러내고 전해주는 ‘거룩한 일’ 이다. ‘성사’ 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다. ‘거룩한 것으로써 거룩하게 해준다.’ 는 뜻이다. 성사를 다른 말로 ‘유효한 표징’ 이라 한다. ‘표징’ 이란 보이지 않는 실재와 관련되어 그 실재를 가리키고 나타내주는 감각적 수단

또는 도구 곧 ‘볼 수 있는 표지’ 이다. 예컨대 반지는 불가시적 부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국기는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 표징은 언어다. 말이나 문자는 보이지 않는 생각, 뜻, 의견, 마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매체이다. ‘유효한 표징’ 이란 불가시적 실재(은총)를 리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시적 실재(은총)를 전달하는 ‘효과적’ 표징을 말한다. 성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불가시적 은총, 사랑, 생명을 드러내고 실제로 전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 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사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계시해주는 유효한 표징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요한 14,9)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 이므로 그분을 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듣고 본 것, 손으로 만져 본 것, 그 생명이 나타났다.” (1요한 1,1) 그분은 하느님 자비의 성사 자체이다. 그 자비를 드러내고 베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특히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죄인들 틈에서 세례받고, 연약한 인간처럼 유혹을 겪고 죄인으로 지탄받는 이들과 먹으며 사귀셨고, 죄인 취급당해 재판받고 죄인처럼 사형 당하셨다. ‘죄인의 벗’ 으로 처신한 예수님의 삶, 말씀과 행적이 모두 자비의 성사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습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분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하셨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 또는 구체적 행동이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성사들의 기초를 놓으셨고, 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과 성품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칠성사 모두가 어떤 처지에서든 자비로이 용서해주는 하느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의 순간들이다.

[2009년 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가톨릭마산 8면]

연령회 문의: 0427 995 488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캠시)	2호차 (캠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2월15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2월22일: 최종문 아오스팅, 김예환 스테파노 03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3월08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3월15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2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2월23일: 양재봉 다니엘 03월02일: 03월09일: 03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2월16일: 02월23일: 김영권베네딕토 03월02일: 최상현 베드로 03월09일: 03월16일:	02월16일: 김진태 앤드류 02월23일: 03월02일: 최영수 율리오 03월09일: 03월16일: 김진태 앤드류	02월16일: 최 안젤라 02월23일: 서용호 마태오 03월02일: 문석주 필립보 03월09일: 양명숙 모니카 03월16일: 최 안젤라